

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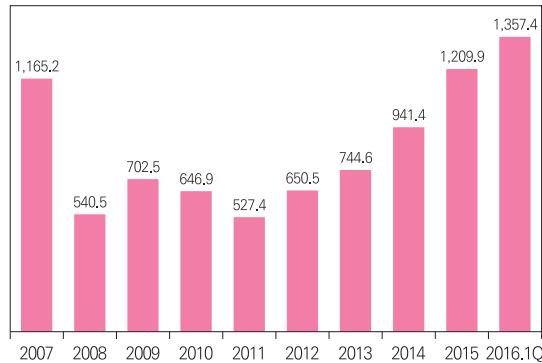
-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, 최근 2분기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6년 1분기말 기준 1,357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
-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2015년 2분기말 기준 2006년 이후 9년만에 해외채권투자가 해외주식투자를 앞서며 투자 규모가 역전되었고, 2016년 1분기말 기준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
-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및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투자대상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, 최근 2분기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6년 1분기말 기준 1,357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
 -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국내 자산운용사, 보험사, 외국환은행(증권사 포함), 증권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시가기준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1,37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
 -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1년 이후 최근 4년 연평균 23.3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
 -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최근 2분기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 1분기중 147.5억달러가 증가하며 2007년 4분기 이후 8년 3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시현
 - 기관투자자별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증권투자 비중이 전체의 47.1%로 가장 높았으며, 보험사 36.4%, 외국환은행(증권사 포함) 9.5%, 증권사 7.0%로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가 80% 이상을 차지
 - 2016년 1분기중 기관투자자별 해외증권투자 증가폭은 보험사가 67.9억달러로 가장 높았으며, 자산운용사 37.2억달러, 외국환은행 26.9억달러, 증권사 15.6억달러 순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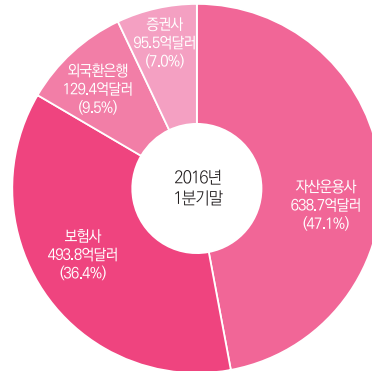


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

(억달러)



기관투자자별 해외증권투자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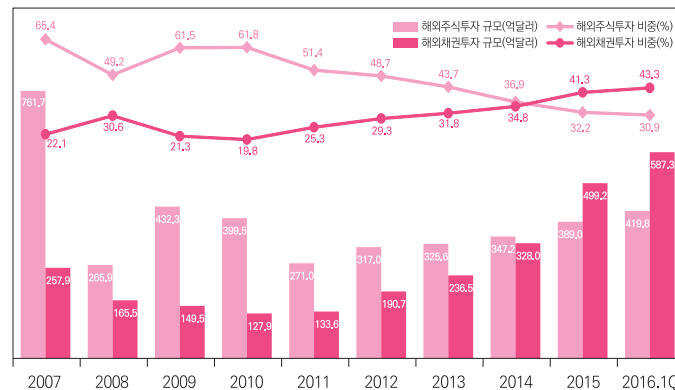


주 : 각 연·분기말 해외주식, 해외채권, Korean Paper(거주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)의 투자 규모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□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2015년 2분기말 기준 2006년 이후 9년만에 해외채권투자가 해외주식투자를 앞서며 투자 규모가 역전되었고, 2016년 1분기말 기준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

- 2015년 2분기말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과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각각 410.1억달러 및 412.9억달러로, 2006년 이후 9년만에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의 투자 규모가 역전
 - 2007년말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해외채권투자의 3배를 상회하며 큰 격차를 시현하였으며, 이후 해외주식투자 규모는 해외채권투자 규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
 -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와 해외채권투자 격차는 2010년 이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, 2015년 2분기말 해외채권투자가 해외주식투자를 앞서며 9년만에 규모가 역전
-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는 2010년을 저점으로 이후 5년 연평균 32.4%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으며, 2016년 1분기말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587.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
 - 2016년 1분기중 국내 기관투자자별 해외채권투자 증가폭은 보험사가 48.2억달러로 가장 높았으며, 외국환은행 23.9억달러, 자산운용사 14.4억달러, 증권사 1.6억달러 순으로 증가
-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전체 해외증권투자중 해외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최고점을 기록하고 등락 반복후 2010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, 해외채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중
 - 국내 기관투자자의 전체 해외증권투자중 해외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65.4%에서 2016년 1분기말 30.9%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
 - 반면, 국내 기관투자자의 전체 해외증권투자중 해외채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22.1%에서 2016년 1분기말 43.3%로 약 2배 증가

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자와 해외채권투자자 규모 및 비중 추이



주 : 1) 각 연·분기말 자산운용사, 보험사, 외국환은행(중금사 포함),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및 해외채권투자 규모 기준

2) 투자비중은 기관투자자의 전체 해외증권투자중 해외주식투자 및 해외채권투자자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

자료: 한국은행

□ 국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및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투자대상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금리 하락 등 국내 저금리 상황 지속되며 기관투자자의 위험분산 및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

-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를 1.50%에서 1.25%로 0.25%p 하향 조정하였으며, 이는 2011년 6월 이후 연속 8차례 기준금리 인하 결정
- 국내 주요 연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 최근 사학연금은 2015년말 8.3%, 5.9% 수준인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운용비중을 2016년말까지 8.5%, 7.9%로 확대하는 방침을, 국민연금은 2016년 1분기 13.2%, 4.4% 수준인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운용비중을 2021년말까지 25%, 5% 내외로 확대하는 중기 자산배분안을 발표

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추세가 두드러졌으나,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해외채권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증가

- 국내 주식시장 부진 및 저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중심에서 해외시장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시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, 변동성이 높은 위험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선호가 증가하는 추세

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등 국내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추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

선임연구원 태 희